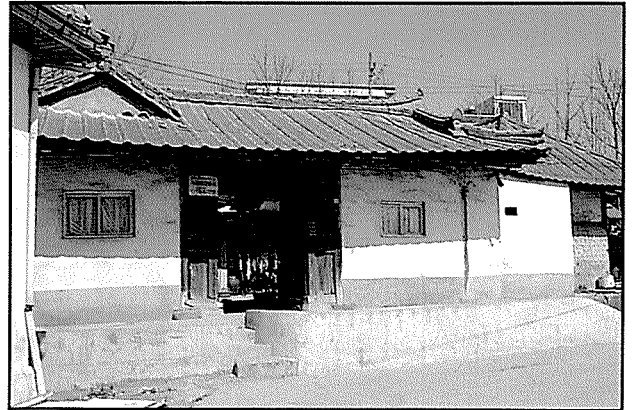


# 아픈 날개 서로 기대며 '희망새'가 난다

## 시흥시 무의탁 장애인 가정 '사랑의 공동체'

봄을 시샘하듯 꽃샘바람이 거세게 분다. 도리질 치며 떨어트리려 하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기억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럴수록 다시 찾은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랑의 공동체'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돕는 보금자리다. 신정희 씨를  
비롯한 무의탁 장애인 식구들은 쓰린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며 새살의 싹을  
키우고 있다.



신정희(28)씨. 그에게 올 봄은 더욱 각  
별하다. 얼어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새로운  
활력으로 활짝활짝 춤을 춘다. '그래, 봄이  
구나.' 마치 처음으로 봄을 맞이한 듯한 느  
낌이다.

성장기가 지났음에도 지난 겨울 동안 무  
척 자란 것 같다. 밝힐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려 토실토실한 알곡을 맺는 보리처럼 칼  
바람 같던 지난 일들이 오히려 감사할 뿐이  
다. 끝간 데 없는 절망 속에서 건져올린 삶  
의 의지가 굳세다.

그러나 또 다시 통증. 진통제를 먹어도  
내성이 생겼는지 좀체 듣질 않는다. 아직도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새살을  
시샘하듯 다리의 통증은 횡수를 거듭하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다시 찾은 삶, 그러나 과거는 꼬리를 물고...

그가 다리를 다친 것은 지난 94년 봄. 강  
원도 양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녀로 태어  
나 스무살에 결혼한 그는 당시 무척 지쳐있  
었다.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의 불화는 끝이 더욱 깊어져 갔다.  
고단한 삶. 자신을 옹아매고 있는 끈들을  
뿌리치고 싶었다. 사고가 있던 날, 그는 친  
구를 만났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정신은  
이따뜻했고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었다.

그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끊어진 기억의  
토막을 이을 새도 없이 그는 두 다리를 움

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밤 정신  
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간호원이 한눈  
을 판 사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과실  
책임을 두고 병원과 옥신각신했고 그런 과  
정 중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 다친 다리는  
악화되어 골수염으로 번졌고 그는 큰 병원  
으로 옮겼다. "그 병원에서 그동안의 치료  
비를 지불하지 못해 지불각서를 쓰고 병원  
을 옮겼습니다. 그때가 94년 8월이었어  
요."

그를 둘러싼 인연의 끈들은 너무도 쉽게  
(?) 떨어져 나갔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누  
구도 없었다. 친정은 막대한 치료비는 물론  
병구원을 할 여유도 없었고 남편은 발길을  
끊었다. 그는 혼자였다.

1년이 지나도록 병원비를 단 한푼도 내  
지 못했고 병원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치료비 문제로 그의 친  
정집과 남편을 찾아갔다. 그러나 친정은 나  
몰라라했고 남편은 재혼한 상태였다. 그는  
결국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서 쫓겨  
났다. 왼쪽 다리에서는 여전히 고름이 흘렀  
고 마음은 숫처럼 타버렸다. '어디로 갈까  
나.'

###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세상의 소금, '사랑의 공동체'

갈 곳 없던 그를 포근하게 맞이하며 그  
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준 곳은 '사랑의 공  
동체'였다.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자그마한



신정희 씨. 더 이상 치료를 늦추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지만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와 새살을 찾아 마음은  
편안하다.

농가에 자리잡은 '사랑의 공동체'는 사단법인 사랑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장애인 생활 공동체다. 95년 6월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신정희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 6명과 이들을 돌보는 집사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를 보살피며 살고 있다.

사랑선교회는 85년 2월 부천에서 설립되었다. 400만 장애인에 대한 선교와 재활 복지사업을 벌이면서 선교회는 부천 장애인교회, 부천 점자도서관, 사랑의 공동체, 사랑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후원도 있지만 이곳은 선교회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들의 헌금으로 채우고 있다.

선교회는 심한 화상을 입어 자신도 장애인이 된 강학석 목사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건져주기 위해 만들었다. 강 목사 자신도 갑작스레 닥친 불행 앞에 넋을 놓기도 했지만 필요한 곳에 쓰시려는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들의 고통이 제 몸처럼 느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희망으로 향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선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려는 장애인들이 조그만 사랑을 모아 만든 곳입니다. 모든 여건이 부족하지만 장애인끼리 서로 도우며 공동체식을 갖는다면 희망을 안고 꽃피듯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전 강 목사는 걱정이 앞섰다. 선교회 일도 벅거운데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가 이 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갈 곳 없어 거리를 헤메는 장애인들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었다. 선교회 살림을 쪼개 전세를 얻었고 장애인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공동체' 살림을 꾸리기로 했다. 물질은 부족하지만 메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교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던 김형만(40), 권정옥(36)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와 장애인들과 함께 살며 재활을 돕기로 해 큰 힘을 얻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 무거운 삶의 무게도 서로 나누면 가벼워지리니

공동체 식구들은 친형제처럼 서로 가깝게 지낸다. 태어난 배경과 자라온 과정은 달랐어도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 쓰다듬으며 희망의 싹을 키운다. 권정옥 집사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동네 주민들이 이곳을 편하게 생각하고 식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며 "이것이 식구들이 재활하는 데 어떤 물질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식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윤석봉(34)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는 불편 없이 살 수 있다. 동갑내기라고 자상하게 챙겨주는 박현주(34)씨가 있기 때문이다. 업고 업히는 둘의 모습이 일심동체처럼 자연스럽다. 윤석봉 씨는 시 쓰는 게 취미다. 동료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체할 수 없는지 그의 시에는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다.



▲ '사랑의 공동체' 식구들. 맨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권정옥 씨.

▲▲ 빠듯한 살림이라 공동체 식구들은 부업으로 살림에 보탠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겁기만 하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리움이 출렁이는/ 은빛바다/ 맨 처음 네게 사랑을/ 심어준 바다/ 바다 냄새에 취해/ 저멀리서 아득히/ 들려온 뱃고동 소리/ 당신이 내게 남겨주고/ 간 그리움의 바다/ 나는 조용히 출렁이는/ 은빛바다 바라보며/ 옛추억에 젖어/

# 사랑나누기를 함께 할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지는 훈훈한 빵내음이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이 어우러진 사회, 그 사회는 분명 건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그만 지원이 건강한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 후원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 일반회원 매달 2,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특별회원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찬조회원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기부금
- 봉사회원 자원 봉사자

## 이렇게 후원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1년 이상
  - '사랑의 공동체'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회원신청서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 월간 베이커리 독자엽서 뒷면에 부착해 보내주시고,
  2. 후원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233-24-0042-196 강희석
- 중소기업은행 : 107-02-0150-149 강희석
- 조흥은행 : 505-1-018624 강희석
- 제일은행 : 356-20-178209 강희석
- 우체국 : 100149-31-7370851 강희석
- 알림

**신정의 씨와 사랑의 공동체를 도읍시다**  
후원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후원신청서를 엽서에 부착해 월간베이커리 편집실로 보내 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랑의 공동체' 주소
- ☎ 429-030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333
- ☎ (032)693-2852
- (032)652-9963

## 후원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연령
주소			전화
직장			전화
후원금			후원단체
송금은행			
기타			



윤석봉 씨는 기계이 박현주 씨의 등에 업힌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니 내집처럼 편안하다.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나는 가고파 가고파 하네/ 그곳은 그리움이/ 출렁이는 은색의 바다/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파 가고파 하는/ 나는 외로운 바닷새/ 되었네”

공동체 식구들은 정희 씨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른다. 그렇지만 정희 씨의 표정은 편안하고 밝아 보인다. 마음 속에 깊게 팬 상처 자리에 희망의 싹이 트었기 때문이다. 요즘 염증이 더욱 심해져 견디기가 무척 고통스럽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이곳으로 누군가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어요.”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가 보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잠시 후, 식은땀을 끌어내리며 그는 식구들과 다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었다. ☎

〈글/손인수〉